

# 병자호란 시 申適道와 曹守誠의 『倡義日記』를 통해 본 영·호남의병

류창규\*

- I. 머리말
- II. 의병 거의 과정과 의병진의 경로
- III. 의병진의 구성
- IV. 두 의병장과 의병진의 성격
- V. 맺음말

## I. 머리말

1636년(인조 14년) 12월 청은 조선을 침입하여 10여일 만에 서울 근교까지 이르렀다.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는 12월 19일 교서를 내려 의병을 독려한다.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지만, 병자호란 시 의병 활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청의 침입로에 위치하였던 관서 지역의 의병이 적과 맞서 싸웠지만, 다른 지역 의병은 대규모 전투를 치르지도 못한 채 인조의 출성과 항복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더욱이 호남의병을 제외하고는 그 조직이나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병자호란 시 의병에 대한 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sup>1)</sup>

그러한 가운데서도 단편적이거나 각 지역의 의병장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의병 활동에 대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으며, 호남의병의 활동은 『호남병자창의록』, 『은봉창의록』 등을 통해 대체를 파악할 수 있다.<sup>2)</sup> 또한 각 의병장이 남

\* 남부대학교 교수

1) 병자호란 당시 전국 의병과 호남의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이장희, 「정묘·병자호란시 의병 연구」, 『국사관논총』 30(1991).

· 류창규, 「병자호란과 호남의병」, 『남도문화연구』 21(2011).

2) 병자호란 당시 호남의병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호남병자창의록』으로 편찬되었다. 그

긴 일기나 일지 등을 통해 당시 의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 화순에서 거의한 淸江 조수성과 경상도 의성에서 거의한 虎溪 신적도는 의병 활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일지를 남겨 병자호란 시 의병을 조금 더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sup>3)</sup> 이 글에서는 영남과 호남 출신 두 의병장의 활동 일지를 중심으로 병자호란 시 의병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먼저, 신적도와 조수성이 의병을 일으키는 과정과 의병진의 진격로를 살펴보고, 거의 과정에서 차이점도 드러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의병진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신적도와 조수성 두 의병장이 처한 지역적 분위기를 찾아보려 한다. 이를 통하여 신적도 의병진과 조수성 의병진이 구성되고, 활동하기까지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하였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이 글의 전개가 오로지 영남과 호남의병을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

렇지만 보성을 중심으로 거의한 안방준의 의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봉창의록』으로 별도로 남아 있다. 『호남병자창의록』의 간행과 의의에 대하여는 권수용, 「병자창의록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2011)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병자호란 시 호남 의병에 참여한 인물은 『호남절의록』에도 들어 있다. 하지만 각 책과 각 판본에 따라 수록된 인물에 차이가 있으며 인원수가 다르다. 이러한 점은 자료 수집과 선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편찬을 주도하였던 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2011), 81-84쪽을 참고할 수 있다.

- 3) 이 글에서는 신적도의 『호계선생유집』 가운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부분을 번역한 신해진의 『역주 창의록』(역락, 2009)을, 조수성에 관한 내용은 『청강집』, 「병자거의일기」와 『호남병자창의록』 두 번째 간행본(정조 2년, 1798)을 주로 인용하였다. 신적도의 병자호란 시 「倡義日錄」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이며, 조수성의 「丙子學義日記」는 그의 아들 曹煜이 함께 종군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편의상 두 기록을 창의 일기나 창의일지로 표기해둔다. 이 외에도 병자호란 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던 이들이 남긴 창의록이 남아 있으나, 일지 형식의 창의일기로는 위의 두 의병장이 남긴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4) 신적도와 조수성은 병자호란 시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자리매김 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창의일지는 다른 의병장이 남긴 기록에 비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소모사 정홍명 아래 활동하였던 황위가 남긴 일지(『당촌집』3 「잡저」 창의일기)나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만승이 남긴 병자창의록(『괴당선생문집』2 「부록」) 등 여러 기록이 있지만, 거의 사실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거의 사실과 일정 등을 당시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신적도와 조수성의 일지가 비교적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굳이 지역적 차이를 밝혀내기에는 한계도 있다. 청의 침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대치하는 국면이 조성되었기에 호남과 영남은 적의 침입에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의병이 거의 과정이나 활동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차라리 조직과 인적 구성에서 보면 영남과 호남 안에서 두 의병진과 다른 의병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두 의병진을 살펴보려는 것은 비교적 구체적인 창의일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나아가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인조가 ‘영남은 의리 있는 자가 많아 의병을 일으켰으나, 호남은 그러지 못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여, 호남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상황이 전개된 연유에 대하여 두 의병진을 비교함으로써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창의일지를 중심으로 두 의병진의 구성과 활동 면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다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호남의병 가운데 조수성 의병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조선 후기 호남 지역 재야사림의 존재 형태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계기로 삼고자 한다.

## II. 의병 거의 과정과 의병진의 경로

신적도(1574-1663)는 63세의 나이로 정묘의병에 이어 병자의병을 일으켰으며,<sup>5)</sup> 조수성(1570-1644)은 67세의 나이에 병자호란을 맞이하여 생애 첫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의 경험이 있었던 신적도와 그렇지 못한 조수성은 병자호란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적도의 의병 창의일지는 1636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조수성의 일지는 12월 25일부터 시작된다.<sup>6)</sup> 신적도는 12월 20일에 의병을 일으키자는 통문을 고을 인사들에게

5) 신적도에 대한 연구로 김태안, 「호계 신적도의 생평과 의병활동」, 『퇴계학』 8 (1996)과 장숙필, 「호계 신적도의 의리사상과 그 사상적 토대」, 『동양고전연구』 33(2008)를 들 수 있다.

6) 신적도의 창의에 관한 기록은 『역주 창의록』의 「창의일록」을, 조수성에 관한 부분

떠우며, 조수성은 12월 25일에 인조의 교서문을 접하고 의병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적도는 통문을 띄운 이틀 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에 비해 조수성은 거의 당일 날 가족들을 모아 놓고 거병을 논의하였으며, 화순현감의 동의로 의병청을 설치하고 각 읍에 격문을 띄워 의병 참여를 요청한다.<sup>7)</sup> 그 과정에서 조수성은 자연스럽게 의병장이 되었다.

의병의 거의 시점부터 신적도와 조수성은 달랐으며, 거의 과정도 다른 길을 걷는다. 먼저 신적도의 경우부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신적도가 의병에 관한 교서와 경상좌도 兵使의 關文을 접한 것은 조수성과 마찬가지로 12월 25일이었다. 신적도는 인조의 교서문을 접하기 전에 이미 의병을 계획하였다. 즉 왕과 官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의병을 계획했다고 하겠다. 계획 단계에서는 그러하였지만, 신적도는 경상도 감영으로부터 전해지는 관문을 통해 당시 상황들을 계속 접하였으며, 의병 거의 관련 사항들을 전달 받았다. 비록 거의는 공적인 체제와 무관하게 계획되었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관을 통해 정국과 의병 관련 상황 소식을 접함으로써 공식적인 의병으로 자리하였던 것이다.<sup>8)</sup>

신적도는 의병장으로 추대된 이후 다음 날 의병을 모집하는데, 그 지역 장정들이 모두 관군에 편입되어 쓸 만한 의병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 날은 군량미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모은다. 이렇게 하여 12월 26일 의성을 떠나 그믐날까지 경상좌도 의병이 모이기로 한 함창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의병진을 구성하기까지 신적도는 의병 거의에 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관병과 의병이 세력을 합하여야 하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는 점을 걱정하면서도, 관군에 속하여야 할 사람을 의병으로 모집하지 말며, 군량 모집에 있어서 官穀을 거두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였다.<sup>9)</sup> 관병과 관곡을 침범하지 않고

은 『청강집』의 「병자거의일기」와 『화순군지』(1980) 「병자호란과 조수성」을 주로 참고하기로 한다.

- 7) 『청강집』 3 「병자거의일기」 12월 25일.
- 8) 의병은 의미 그대로 스스로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 전란을 맞이하여 특정 개인이 함부로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체로 관으로부터 임명된 소모사나 호소사의 의병 창의를 요청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의병이 구성되었다. 병자호란 시 의병도 인조의 교서문이나 소모사의 격문에 의거하여 조직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관이나 지역 사족들에 의해 의병진으로 인정받는 암묵적 동기가 따랐다.
- 9) 『역주 창의록』 「절목」. 『호계선생유집』 4권은 병자호란과 관련한 신적도의 글들을 주로 담고 있고, 「절목」도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절목」의 내용을 보면

의병 본연의 거의에 철저하고자 한 것이다.

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신적도는 병영과 수영 등에 활, 화살, 조총, 화약 등을 요청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는 신적도의 의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신적도 역시 군기에 관하여는 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의병들이 무기를 갖출 수 없었던 데에서 나온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다. 신적도는 경상도 상황이 임진왜란 때와는 달리 관병과 의병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 않음으로 의병 거의 과정에서 관의 일에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요구하였다.<sup>10)</sup> 그리고 경상도 관군이 함창에서 일제히 모이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의병의 지휘자들이 나가지 말고 의병진의 대오를 갖추는 데 노력하라고 하였다.<sup>11)</sup> 관병과 행동을 꼭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였다.

신적도의 의병은 병자년 다음 해인 1937년 1월 1일 함창에 도착하였다. 신적도 역시 경상 지역 다른 의병과 함창에서 합세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 신적도가 함창에서 결집한 경상의병의 지휘를 따라 활동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상좌도 의병이 함창에 모여 모두 합하여 진격한 것은 아니었으며, 각 의병진이 별도로 남한산성을 향해 나아가고 신적도의 의병은 약간 뒤쳐져 행군하였기 때문이다. 신적도 의병이 광주 한산에 도착한 것은 1월 10일이었다. 그런데 1월 12일 남한산성 내에서 청과 화친 논의가 있어 모든 관군과 의병의 입성이 금지되었으며, 신적도의 의병은 해산하여 되돌아가게 되었다.<sup>12)</sup> 신적도는 1월 13일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지

---

신적도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과 용어들이 들어 있다. 서얼 허통 첩지, 경상 좌우도에 파견한 종사관, 병영과 수영 등에 보낸 공문 등 여러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상도 지역 관군과 의병을 총괄하는 경상 체찰사가 보낸 「절목」이라고 보인다. 아직 경상도 지역 체찰사가 확인되지 않고, 「절목」도 드러나지 않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설령 신적도가 작성한 「절목」이 아닐지라도 「절목」의 내용을 통하여 경상도 지역의 분위기와 신적도 의병의 거의 과정을 짐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 10) 『역주 창의록』 「절목」. 「절목」이 아니더라도 임진왜란, 정묘호란 때와는 상황이 다른 신적도의 창의일지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특히 관군에 편입된 사람이 많아 의병 모집이 어려웠으며, 흉년으로 군량 모집이 어려웠다 한다. 나아가 일반 백성의 경우 의병에 참여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이 의병 모집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여겨지기도 한다.
- 11) 『역주 창의록』 「절목」.

내다가, 인조가 출성하던 다음 날인 2월 1일 귀향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2월 9일에 집에 도착하기에 이른다. 산성 내에서 신적도는 정국의 상황을 보고, 듣는 것으로 보냈다. 결국 그의 의병은 전투를 겪지 않고 남한산성 근처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그런데 의병의 진격 과정에서 신적도는 끊임없이 청과의 전투 상황은 물론 이거니와 남한산성 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의병 거의 과정에서는 관과 분명한 거리를 두면서도 정국의 상황에 대하여는 여러 통로로 소식을 접하였던 것이다. 그의 창의일지는 대체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실, 신적도의 창의일지는 의병 구성원의 모습과 활동에 대한 적나라한 기술이기보다는 신적도가 접한 정국의 소식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의병장과의 연대나 경상의병장으로 임명되었던 쏜뚱과의 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sup>13)</sup> 거기다 관군과는 엄연히 선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 관군 지휘권자와의 관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조수성의 창의일지는 자신의 의병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의병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거의 시점의 상황부터 살펴보겠다. 교서문을 받은 이후 조수성은 거의를 결정하고, 자신의 가족과 노비를 대상으로 의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화순현으로 나아가 객사 대청문 밖에 모의청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 화순현감의 협조가 있었다. 모의청을 설치하자 화순 유생 임시대와 최명해가 참여하고, 병기를 주조할 수 있는 장인들이 또한 참여하였다. 아울러 능주·남평·나주·광주·동북에 격문을 보내고 의병 거의에 참여할 有司를 정하였다. 조수성과 연계가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화순 인근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의병을 조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4)</sup>

12) 『역주 창의록』 「창의일록」 정축년(1637) 1월 12일.

13) 경상 지역 의병의 구성은 각 지역 단위로는 보이지만, 경상좌도와 우도를 망라하는 지휘체계나 소모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식의 경우 『연려실기술』, 『속잡록』 등에 경상의병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상도 지역을 아우르는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경상도 어느 지역의 의병진이 여기에 함께 하였는가는 알 수 없다.

14) 조수성은 호남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 거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시각이 촉박하여 인근 지역에 격문을 보냈다 한다(「병자거의일기」 12월 28일). 하지만 당시 호남 지역 의병 거의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의병 주도층 각자의 연계망을 통하여 의

모의청을 설치한 이후 조수성은 지휘부, 군수물자 담당, 의병 모집 담당 등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정한다. 군수물자 확보와 의병 모집에 전력하면서 조수성은 군사훈련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다. 12월 25일 기의를 선포하고 다음해 1월 11일에야 호남 지역 의병이 집결하기로 한 여산을 향해 화순을 출발하였다.<sup>15)</sup> 보름 동안 군수물자 확보와 군정 모집에 노력하면서, 모집된 의병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유사로 정한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화순현감도 保人과 官奴 등을 보냈으며 군량미와 무기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신적도의 의병과는 달리 인근 다른 지역과 관의 협조를 받았으며, 나름대로 상당한 훈련 기간을 거쳤다. 또한 인근의 사찰로부터 군수품을 조달받기도 하였다.

1월 19일 여산에 도착한 조수성 의병진은 옥과현감 이흥발을 중심으로 거의한 호남의병과 협력할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의병진과의 하나로 뭉쳐 지휘체제를 구성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같이 협력하는 정도였다.<sup>16)</sup> 1월 26일까지 여산에 머물면서 훈련을 하던 조수성 의병진은 1월 26일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하여 나갔다. 여산에 모인 호남의병은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하자는 조수성의 의견에 따라 출전하였으며, 1월 29일 청주에서 청나라 군사가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날 전투를 벌인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소강상태에서 적의 근황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였다. 1월 30일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출성하여 항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성을 비롯한 의병들은 그 상황을 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sup>17)</sup>

---

병 참여가 이루어졌다. 조수성이 함께 의병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지역과 인물은 화순과 인근 5개 지역에 국한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 15) 『호남병자창의록』 등에 의하면 호남의병은 1월 20일에 여산에 모여 출전하기로 하였다(류창규, 앞의 논문, 284-285쪽). 하지만 남원, 임실, 구례 등 전라 우도 지역 의병은 12월 29일에 여산에 모여 1월 초순에는 소모사 정홍명과 합류하였다 한다(『당촌집』 3 「잡저」 창의일기). 이들은 『호남병자창의록』에 보이는 이흥발 등 의병 주도 인물들과는 달리 일찍이 소모사 정홍명과 합류한 의병진이었다.
- 16) 조수성 의병은 이흥발 등 호남의병과 협력은 하지만 그의 지휘체제 아래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병자거의일기」 12월 28일), 여산에 도착한 이후 정홍명이 호남의병대장으로 임명된 것을 알고도 그의 지휘 아래 들어가지 않고 이흥발 등의 태도를 보아 협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정홍명과 이흥발 등이 거느린 의병의 군세가 조수성의 의병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도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월 4일에 조수성은 청나라 군대가 패하고 인조는 서울로 돌아갔다는 풍문을 들었지만 의심쩍어 계속 진격하고자 하였다. 그 날 청주 근처에서 인조의 출성과 강화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고, 귀향길에 올라 2월 15일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조수성의 의병진이 얼마나 정국의 현황에 대한 소식에 어두웠는지 알 수 있다. 조수성이 의병 기의와 진격 과정에서 군수품 확보와 군사 훈련에는 힘을 썼지만, 진격 과정에서 정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신속한 정보망은 구축하지 못했던 셈이다.

### Ⅲ. 의병진의 구성

신적도의 의병진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지 등 다른 기록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신적도가 의병을 일으킨 의성이 경상좌도에 속했기 때문에 경상좌도 의병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상좌도 의병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거의 당시, 경상좌도와 우도를 여섯 都會로 나누고 세 명의 종사관이 각각 두 도회를 관장하였다.<sup>18)</sup> 그리고 각 읍에는 소모관이 있고, 그 아래 소모유사가 지명되었다. 신적도의 의병이 의성 외에 어느 지역의 의병을 포함하고 있었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병장으로서 신적도가 다른 지역 소모관과 소모유사를 거느렸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병장 신적도 아래 의성의 소모유사로 지명된 이들이 속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군량을 모으기 위한 소모유사도 있었다. 신적도는 의병 모집 과정에서 경상좌도 의병을 관할하는 종사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였지만, 다른 의병장과 연대하거나 경상좌도 의병진에 속하지는 않았다.<sup>19)</sup>

17) 여산에 모인 조수성을 비롯한 이흥발 등 호남의병은 관이나 사적인 통로를 통해 남한산성, 강화도 등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으며, 적의 향방에 대하여도 정보를 갖지 못하였던 것 같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그만큼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한계였을 것이다. 또한 소모사 정홍명, 전라감사 이시방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18) 『역주 창의록』 「절목」.

19) 신적도의 의병은 경상의병장인 전식의 의병진에 합류하지 않고 잠시 뒤쳐졌다가 독자적으로 남한산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는 신적도 의병진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적도가 의도적으로 다른 의병진과 합류하지 않고 남한산성을



신적도 의병진은 출전하는 병자년 12월 26일에 활을 지닌 사람이 150여 명, 포를 가진 사람이 230여 명, 지휘자 50여 명으로 400여 명의 규모를 이루었다 한다. 의병 거의를 위한 통문을 띄운 지 5일만에 400여 명의 의병을 규합하였다는 점은 경상 의병장으로 임명된 상주 출신 全湏이 거느린 의병이 수백여 명의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에 비하면 대단하다고 하겠다.<sup>20)</sup> 더욱이 전식이 거느린 의병의 다수는 노비들이었다고 한다. 신적도의 의병 규모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신적도가 짧은 시간에 상당수의 의병을 모집할 수 있을 만큼 의성 지역의 기반이 튼튼하였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어떻게 신적도의 의성 지역에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신적도의 의병진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砲手가 230여 명이었던다는 점이다. 당시 경상도 각 지역에는 私砲手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1)</sup> 관군에 소속되지 않은 사포수를 230명이나 모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신적도는 모군하는 과정에서 쓸 만 한 자는 관군에 편입되고 남은 자들은 노약자뿐이어서 매우 고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를 선언한 오육일만에 400여 명을 모았으며, 그 가운데 포수가 절반이 넘었다는 점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경상도 지역 다른 의병진의 구성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호남 지역과 비교하여 보아도 신적도의 의병진은 포수 중심의 의병으로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경상좌도 의병이 12월 그믐날까지 함창으로 모이기로 했기에 신적도는 출전을 서둘렀다. 당연히 별도의 훈련을 거칠 시간이 없었으며, 군수물자를 제대로 보급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신적도의 의병진은 정축년(1637) 1월 1일 함창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좌도 의병진에 합류하지 않는다. 1월 3일 조령에 도착한 이후, 관군과 각지 의병이 청군과 맞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남한산성을 향해 줄곧 진격하였다. 진격하는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곤경을 겪었지만, 신적도 의병진은 1월 12일 광주 한산에서 해산하기까지 전투를 치르지 않고 행군함으로써 그 활동을 다한다. 신적도는

로 가까이 가는 것을 우선시 하였던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0) 경상 의병장 전식의 의병진에 대하여는 『속잡록』 4 인조 정축년 2월 2일 기록과 『연려실기술』 26 인조조 고사본말을 참고 할 수 있는데, 수백 명의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21) 『역주 창의록』 「절목」.

창의일지에 의병진의 지휘체계나 군율, 군수물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남겨 놓지 않아 더 이상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신적도 의병진에 비해 조수성 의병진의 구성원과 지휘체계 등은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다. 조수성은 거의를 선언한 병자년 12월 25일, 그 날 100명 정도의 의병을 모았다. 이들은 조수성과 조카 曹煥의 집안에서 동원된 의병이다. 상당수의 家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가의 소작인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이다.<sup>22)</sup> 출정을 앞두고 군사를 점검할 때 524명에 이르렀다 하니,<sup>23)</sup> 이후에 400여 명의 의병을 더 모은 셈이다. 그 구성원의 대략을 보면, 조수성을 비롯한 그 일가에서 모집한 135명, 임시대 형제들을 비롯한 화순 유생들이 모집한 125명, 화순현감이 보내온 30명, 화순읍과 면에서 모집한 45명 등 화순에서 335명이 동원되었으며, 나주지역 소모유사들이 모집한 37명, 광주유사가 모집한 15명, 능주유사가 모집한 17명, 동북유사가 모집한 9명 등 인근 지역에서 모집한 79명이 동원되어 확인되는 수는 413명에 이른다. 그리고 지휘 부를 맡았던 의병소모유사와 군관으로 편제된 유생층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524명의 숫자는 대략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조수성 의병진의 구성

모집지역	모집자	직책/지위	모집 구성원 구분				기타	
			가노	가동*	관노 (보인)	군정**		계
화 순	조수성	의 병 장		53			53	
	조 엽		46				46	조수성 종질
	조수현			5		10	15	조수성 종제
	조 찬			6		8	14	조수성 종질
	조수천					7	7	조수성 서제
	최명해	유 생				9	9	
	임시대	유 생				17	17	임시민 형
	공우길	유 생	5			15	20	
	공형길	유 생				15	20	
최기중	유 생				21	21		

22) 조수성, 「병자거의일기」 12월 26일. 모집한 군정이 100명에 가까운데, 모두 노비 들인 것은 아니고 戶下良丁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23) 「병자거의일기」 1월 6일.

	임시민 의 4인	유 생			33	33	임시태 형제들
	박상진	유 생	17			17	
	류 함	유 생			8	8	
	류 현	현 감		30		30	
화순서면					9	9	
화순동면					9	9	
화순읍					27	27	
나 주	류 준	나주유사			7	7	
	최진강 홍명기	나주유사			17	17	
		나주유사			13	13	
광 주		광주유사			15	15	
등 주		등주유사			17	17	7명은 교생
동 복		동북유사			9	9	
합 계			51	81	30	251	413

\* 가동에는 가노와 일반농민이 함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군정이라고 표기된 이들 가운데도 가노와 일반농민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수성 의병진의 수는 병자년 다음 해 1월 4일 호남의병의 주도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흥발이 모집한 의병 47명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었다 하겠다.<sup>24)</sup> 비록 화순 지역을 제외하고 모집된 의병수는 많지는 않지만, 조수성이 인근 4개 지역에 소모유사를 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수성 의병진 가운데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화순 현감이 보내준 30명의 관노와 保人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신적도가 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병으로 모집하지 않은 사실과 비교하여 흥미롭다. 신적도는 관으로부터 의병과 군량 등을 지원받지 않으려는 분명한 자세를 취한 반면, 조수성은 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조수성 의병진은 출정할 즈음 활 150개, 화살 380부, 창 85자루, 총 72자루, 화약 110근, 검 62자루를 확보하였다. 이로 보아 조수성 의병은 활과 창·검·총을 든 보병으로 구성되었고 하겠다. 비록 총 72자루를 가지고 있었지

24) 조수성 의병진의 일원이었던 최명해가 이흥발의 군막에 갔다고 돌아와 보고한 수이다(「병자거의일기」 1월 4일). 한편 『호남병자창의록』에 의하면 호남 각 읍에서 모집한 의병수는 20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누락된 숫자가 많았겠지만 당시 다른 호남 지역 의병 모집은 저조한 실정이었다(이장희, 앞의 논문, 207-208쪽).

만, 신적도 의병진에 비해 포수의 수는 적었다고 하겠다. 또한 말 54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들은 군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수성은 무기에 따라 병종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수성 의병진의 군사훈련이 진법과 習射와 放砲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병종에 따라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수성은 의병 모집 뿐 아니라 군량미와 무기, 기타 군수물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匠人들을 확보하고, 불철주야 무기를 주조하도록 하였다. 물론 지역 유사와 유생층, 화순현감 등으로부터 무기를 조달받기도 하였지만, 부족한 무기는 의병진에서 직접 만들어 공급하였던 것이다. 무기 외에 각별히 수급에 힘을 쓴 것은 군량미였다. 출정하기 며칠 전에 점검한 군수물자 가운데는 군량미 150석, 콩 50석 등이 나타난다.<sup>25)</sup> 뿐만 아니라 각종 식재료와 의복 등 전투에 필요한 물자 등을 확보하고 있다. 신적도 의병진과 마찬가지로 조수성 의병진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군수물자 확보였다.

조수성의 의병 거의 과정에서 군수물자 역시 조수성 일가를 비롯한 화순의 유생으로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조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유사들 역시 물자를 조달하여 보냈다. 조수성은 특히 화순 만연사·능주 쌍봉사·석천사·남평 운흥사·동북 유마사·순천 송광사·선암사·광주 중심사·영암 도갑사·해남 대둔사 등에 군수물자를 조달하도록 牌를 발행하였다.<sup>26)</sup> 화순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순천·영암·해남 등지의 사찰에까지 물자 공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만연사·유마사·영봉사·쌍봉사 등에서 물자를 보내오고, 1월 8일에 송광사의 승려는 물품을 가져오면서 늦게 온 데에 사죄하고 있다.<sup>27)</sup> 사찰의 승려들 가운데는 이미 승군에 차출되어 관군에 합류하였지만, 지역의 의병 거의에 물자를 공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조수성은 의병 거의 과정에서 의병진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다. 의병 지휘부를 편성하고, 각각의 담당 업무별로 책임자를 정한다. 군량 등 군수물자 관리를 위하여 軍餉色吏, 군사훈련을 위해 隊伍長·軍案 작성을 위한 領兵軍官 등을 두었다. 출전 시에는 의병 부대를 편성하고 각기 부대장을 두는

25) 「병자거의일기」 1월 6일.

26) 「병자거의일기」 12월 27일.

27) 「병자거의일기」 1월 8일.

가 하면, 임무에 따라 각각의 군관을 임명하였던 것 같다.<sup>28)</sup> 아울러 군율을 정하고 의병과 의병 지휘자들 모두 호패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가 군율을 엄격히 하였음은 출정 당일 자신의 노비 우두머리였던 무진금이 점점 시에 늦게 도착하자 참수하였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sup>29)</sup>

조수성 의병진이 기의하여 출정하기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은 의병 모집과 군수물자 확보에 시간이 소요된 탓도 있지만, 노비와 일반 농민으로 구성된 의병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점도 작용하였다. 거기에다 호남의병이 여산에 결집하기로 한 날짜에 여유가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데도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조수성의 의병진은 보병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637년 1월 19일 여산에 도착하고, 이후 다른 호남의병과 합류하지만, 독자적인 전투체제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를 치른다. 비록 남한산성을 향한 진격로는 동일하지만, 거의 독립적인 의병진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 IV. 두 의병장과 의병진의 성격

조선에 들어서 신적도의 선대는 상주를 거쳐 의성에 터전을 잡았고, 신적도 때에는 의성의 사족으로 사회적 기반을 든든히 하고 있었다. 신적도는 퇴계 이황의 문하인 한강 정구와 정구의 문하였던 여헌 장현광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특히 장현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할아버지 申元祿은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바, 그의 가계는 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그를 비롯한 그의 가계는 퇴계의 학풍을 이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인 집단의 일원이었다고 하겠다.<sup>30)</sup> 그는 16-17세기 퇴계 제자층으로 구성된 안동 처사층의 재야사립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sup>31)</sup>

신적도의 아버지 申佺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신적도는 32세인 선조 39년(1606)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지내

28) 『화순군지』 「병자호란과 조수성」.

29) 「병자거의일기」 1월 11일.

30) 신적도의 가계와 생애에 대하여는 『역주 창의록』 「호계 신적도 약전」을 참고하였다.

31) 김태안, 앞의 논문, 82쪽.

다가, 54세 때 정묘호란을 당하여 스승이었던 장현광의 부름에 의해 의성현 의병장이 되었다. 당시 장현광은 경상좌도 호소사로 의병 모집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신적도는 정묘호란 이후 잠시 관직을 역임하지만 재야사림으로 병자호란을 맞이하였다. 신적도가 병자호란 의병장으로 일어서기까지 경상도의 퇴계 제자층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남인 집단의 재야사림으로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병자호란 때 의성의 의병장으로 신적도가 활약할 수 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빠른 시간에 상당수의 의병진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조수성은 창녕 조씨로 1500년경 고조부 대에 화순으로 이거하여와,<sup>32)</sup> 화순의 사족으로 성장한 가계 출신이다. 조수성의 아버지대에는 4형제가 소과와 대과 등에 합격하여 화순의 명망가로 부상하였다. 조수성의 조부 조세명은 미암 류희춘과 친인척 관계였으며, 조세명의 네 아들은 미암으로부터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sup>33)</sup> 특히 미암이 저술했던 『儒先錄』은 조수성으로부터 조카 조엽에게 이어져 조수성 집안에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조수성의 숙부 조대중은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sup>35)</sup> 조수성 부친대에 그 가계는 동인 계열의 학풍을 이어받았으며, 정치적으로도 동인 쪽에 서 있었다.

조수성의 가계가 거의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은 조수성의 숙부 조대중이 정여립 사건으로 일어난 기축옥사와 연관되면서다. 1590년 조대중이 죽고, 그 가족과 친척이 연루되어 잡혀가기에 이르렀다. 비록 뒤에 가족들은 석방되었지만, 죽은 조대중은 인조대에 이르러서야 신원되는 등 조수성의 가계는 기축옥사와 관련하여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피해 가문이었다.<sup>36)</sup> 이러한 연유로 조수성 등은 정치적 진출보다는 재야사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입지에

32) 조수성 선대의 화순 이거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고조부 曹樞이 중종대에 순창에서 화순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조엽, 『구봉집』 2 「가장」을 참고할 수 있으며, 조수성의 선대에 대하여는 박해장, 「정곡 조대중의 생애와 사상」, 『기축옥사 재조명』(선인, 2010), 169-170쪽을 참고할 수 있다.

33) 박해장, 위의 논문(2010), 174쪽.

34) 조엽, 『구봉집』 3 「행장」.

35)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퇴계학과 한국문화』 32(2003), 88쪽.

36) 조대중의 기축옥사 관련하여는, 김동수, 「기축옥사와 호남사림」, 『기축옥사 재조명』(선인, 2010)과 박해장, 앞의 논문(2010), 170-173쪽이 참고된다.

놓여 있었다. 특히 서인 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한 호남 지역에서, 비록 억울함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지역적 입지를 넓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조수성은 화순을 중심으로 인근 나주 지역 등 동인에서 남인으로 이어지는 계열들이 나름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연계망을 주로 유지하며 지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수성 가계에서 정묘호란 의병에 참여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병자호란에 이르러서 의병을 기의한 것도 호남 지역 서인 세력의 활동과 연관이 없지는 않을 듯하다. 정묘호란 시 호남의병은 서인이었던 사계 김장생과의 학통에 주로 기반하고 있었다. 인조 초반에 조수성의 가계가 의병을 주도하거나 정치적 진출을 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같은 남인 계열이었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결집된 남인 세력의 일원인 신적도와 서인 세력에 둘러싸인 화순의 조수성은 다른 지역적 분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조수성이 의병을 모집하면서 신적도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입지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문적으로는 넓은 범주에서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적도와 조수성은 향촌사회에서 처한 위치가 상당히 달랐다고 하겠다. 이들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작성한 거의문에도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신적도는 영남이야말로 선비의 고장이며 절의와 충효의 기품이 있는 곳이며, 원충감이 항병으로 흥건적을 무찔렀음을 내세우고 있다.<sup>37)</sup> 특히 신적도는 소중화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오랑캐의 풍속에 빠질 수는 없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조수성은, 호남 지역은 충의의 고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승겸·정지·고경명·김천일 등을 사적을 위해 죽은 호남 지역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sup>38)</sup> 신적도는 화이론적 명분론에 입각한 거의를 중심으로 격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수성은 충절을 통한 尊王을 기치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둘 다 오랑캐에 함락당할 위기에 처한 왕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급히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강조하는 명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신적도에게서 성리학적 명분에 입각한 화이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sup>39)</sup>

37) 『역주 창의록』 및 『호계선생유집』 4 「通諭道內文」.

38) 조수성, 『청강집』 3 「舉義檄文」.

39) 신적도의 사상과 화이론에 대하여는 장숙필, 앞의 논문(2008)이 참고된다.

한편, 신적도와 조수성 의병진은 영남과 호남 지역 다른 의병진과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 신적도 의병의 경우, 병자호란 당시 영남 지역 의병이 대체로 하나로 결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였으며 지휘체계도 불확실한 탓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신적도가 경상의회장으로 지명된 전직과 별도로 의병을 움직였으며, 남한산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것은 쌍령 전투 이후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1637년 1월 2일 죽산 쌍령에서 벌어진 전투에 경상 지역 관군과 의병이 참여하였는데, 패하고 말았다. 경상 지역 의병은 흩어지게 되고, 경상의회장이었던 전직의 의병은 문경에 머물면서 추이를 관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쌍령 전투 소식을 이틀 후에 듣고도 신적도는 조령을 넘어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하였다. 즉 다른 경상 지역 의병과 합세하기보다는 남한산성에 나아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다.

조수성은 화순 인근 이외 지역에서도 의병을 모집할 의도는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며, 결국 화순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의병을 이끌고 호남의병이 모이기로 한 여산을 향해 출정하였다. 비록 여산에서 합류하였지만, 다른 의병진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 아래 사실상 별도로 활동하였다. 당시 호남소모사로 임명되고, 의병대장이 된 정홍명은 자신의 가계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서인 계열 송강 정철의 아들이었으며, 다른 의병장 역시 서인 계열이 주도하였다.<sup>40)</sup> 조수성이 굳이 그들의 지휘를 받아 의병을 움직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적도와는 달리 조수성의 지역사회에서 처한 입장이 결국 독자적인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한다.<sup>41)</sup>

한편, 두 의병진의 출정 이후 상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록으로만 보면 신적도의 의병진은 훈련 상황이 언급되지 않으나, 조수성 의병진은 출정한 이후에도 도착지에서 군사훈련을 틈틈이 하고 있다. 도착 일정의 완급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신적도가 남한산성을 향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

40) 류창규, 앞의 논문, 287-288쪽.

41) 조수성 의병의 호남 지역에서의 위상은 후대 『호남병자창의록』 간행에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62년(영조 38), 1798년(정조 22), 1932년,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된 『호남병자창의록』 가운데 정조대 간행본에만 조수성의 「화순거의시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당시 호남 지역 주도세력의 조수성 의병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면, 조수성은 군기를 다잡고 전투에 대비하려는 의도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일 듯하다. 더 큰 차이는 신적도는 출정 도중에 지방관을 비롯한 관으로부터의 소식과 남한산성내 척화와 화친 논의 등 정국의 상황을 듣고 있었던 반면, 조수성은 정국의 상황에 대하여 거의 접하지 못했다. 조수성이 출정 도중에 맞이한 것은 도착한 지역의 몇몇 사람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조수성 의병진의 상황은 다른 의병장의 주시 대상이었다. 결국 조수성 의병은 정국의 상황을 접하지 못한 채, 다른 호남의병진과도 지휘체계상 결합하지 못한 별도의 의병이었던 셈이다.<sup>42)</sup>

조수성 의병 뿐 아니라 호남의병이 정국의 상황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것은 신적도를 비롯한 경상의병과 비교하면 전란 이후 또 다른 인식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출성 이후 서울로 돌아간 인조는 부제학으로 임명된 경상의병장 전식을 맞이한 자리에서, “듣건대 그대가 창의했다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영남의 군사가 패전한 후에 다시 모였으니, 참으로 영남의 사대부가 임금을 저버리지 않을 줄 아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호남이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였다 한다.<sup>43)</sup> 즉 인조는 영남의병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의병이 없었음을 지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쌍령 전투와 관련이 있다. 1월 2일 벌어진 죽산 쌍령 전투에는 경상감사와 좌우병사가 거느린 관군은 물론 일부 경상도 의병이 참여하였다. 비록 패하였지만, 이는 인조에게 보고되었으며 인조는 경상 지역의 의병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전투에 신적도 의병진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전식의 의병은 문경에 머물러 있었지만 경상 지역 의병의 참여 소식은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당시 전식이 인솔하고 있는 군사는 선비와 노비 수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한다.<sup>44)</sup> 그 군사도 참모관들에게 나누어주어 거느리게 하고 전식은 다만 사대부 6·7명과 더불어 조령과 죽령 사이에 숨어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쌍령 전투에 패한 이후에도 영남의병이 재차 의병을 일으켰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42) 『호남병자창의록』에 조수성을 비롯한 화순 지역 인물들과 조수성 의병에 참여한 다른 지역 유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화순 지역 의병과 군수물자 등이 누락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3) 『연려실기술』 26 인조조 고사본말 및 『사서선생문집』 부록 1 「신도비명」.

44) 『연려실기술』 26 인조조 고사본말.

이에 비해 호남 지역 의병의 활약은 인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 쌍령 전투 이후 전라병사 김준룡이 중심이 된 용인 광고산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는 관군 중심의 전투였다. 광고산 전투 이후 호남 지역 의병 거의를 추구하는 호남 체종사(체찰사 종사관) 김광혁의 명이 있었지만, 호남 지역 의병의 움직임은 재빠르지 못했다.<sup>45)</sup> 그리고 이후 여산에 모인 호남의병이 적과 전투를 벌인 것은 이미 인조가 항복할 즈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빛을 발할 수 없었다. 결국 조수성을 비롯해 여산에 모인 호남의병이 정국 소식을 접하지 못한 만큼, 인조 역시 병자호란 시 호남 지역 의병의 활약에 대하여 정보를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호남 지역 의병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으며, 훗날 『호남병자창의록』 등 별도로 호남의병에 관한 활동을 집약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을 듯하다.

## V. 맺음말

신적도의 의병진은 의성현에 국한되었지만 상당한 규모였으며, 관이나 다른 지역 의병과 협력하기보다는 인조가 있던 남한산성을 향해 나아하는 것이 일차적인 주요 목표였다. 왕이 있는 남한산성 보위가 주요한 기치가 된 셈이다. 화의 논의가 일어나고 의병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지역 의병과 달리 곧 해산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신적도는 출정 도중에도 정국의 상황을 끊임없이 접하였으며, 오랑캐인 청과 화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그가 의병을 해산한 채 홀로 남한산성 들어간 것도 화의의 불가함을 피력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의 의병진은 성리학적 명분과 화이론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조수성에게는 서인 중심의 호남 정서와 서인으로부터 엄청난 수

45) 병자호란 시 청과의 전투 가운데 대표적인 승전으로 후대에 평안병사 유림이 지휘한 금화전투와 전라병사 김준룡이 지휘한 광고산전투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연려실기술』 26 인조조 고사본말), 전쟁 이후 김준룡은 패전한 죄로 처벌되었다. 이에 비해 쌍령전투 전사자에 대하여는 훗날 제사를 지내는 등 광고산 전투에 비해 더 관심이 주어졌다.

46) 조경남, 『속잡록』 4 인조 정축년 1월 11일.

난을 당하였던 동인 가게 출신이라는 점이 의병 거의 과정에 작용하였으며, 조수성은 독자적인 전투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강조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집안 인물을 중심으로 의병 모집과 군사물자 조달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화순 지역 유생들의 도움이 보태져 구성된 조수성 의병진은 관이나 호남 지역 다른 의병진과 협력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른 호남의병과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움직였으며, 비록 화순현감의 협조를 받기는 하였지만 관으로부터 도움이나 정보를 듣지 못하여 마치 별도 부대인 것처럼 활동하였다. 조수성 의병진이 다른 호남의병에 비해 조직과 인원에서 뛰어난 점에도 후대 병자호남의병의 주축으로 자리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조가 청에 항복한 이후 신적도와 조수성은 집으로 돌아오고, 두 사람은 재야 처사로 생을 다하게 된다. 신적도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화의를 청하려 하자 척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는가 하면, 끝내 인조가 출성하자 척화파인 김상헌 등과 통곡하면서 화의를 배척하는 시를 읊었다. 그리고 그는 귀향하여 채미현을 짓고 거주하면서 산림처사로 은둔하였다. 신적도는 이후로도 척화와 존명양이의 명분을 주장하면서 지냈다. 조수성 역시 뒤늦게 항복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였으며, 귀향한 이후 폐문하고 두문불출하며 생을 보낸다. 그리고 조수성의 충절론은 함께 의병에 참여하였던 조카 조엽에게 각별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논문투고일 2013.01.20 심사완료일: 2013.02.01 게재확정일: 2013.02.09

## 국문초록

## 병자호란 시 申適道와 曹守誠의 『倡義日記』를 통해 본 영·호남의병

류 창 규

인조 14년(1636) 청의 침략으로 병자호란이 발생하였다. 가까스로 남한산성으로 피한 인조는 의병을 일으키도록 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병자호란 시 의병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호남의병을 통해 알 수 있다. 호남의병에 관한 내용도 호남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각 진영 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호남의병에 비해 경상도의병은 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경상도 의성의 신적도와 전라도 화순의 조수성이 남긴 의병일지는 병자호란 시 의병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데 주요한 자료이다. 신적도와 조수성의 의병일지는 의병을 일으킨 시점에서부터 집으로 귀향하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일지를 통하여 이들이 의병을 일으킨 과정과 이유, 의병에 참가한 구성원, 활동 등에 대한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에서 일어난 의병진의 차이도 엿볼 수 있다.

신적도의 일지는 의병의 구성원과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은 소략하며, 주로 그가 접한 당시 상황이 중심이 되어 있다. 신적도의 의병진은 의성현에 국한되었지만 상당한 규모였으며, 관이나 다른 지역 의병과 협력하지 않고 인조가 있던 남한산성을 향해 나아하는 것이 일차적인 주요 목표였다. 왕이 있는 남한산성 보위가 주요한 기치가 된 셈이다. 화의 논의가 일어나고 의병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지역 의병과 달리 곧 해산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신적도는 출정 도중에도 정국의 상황을 끊임없이 접하였으며, 오락케인 청과 화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그가 의병을 해산한 채 홀로 남한산성 들어간 것도 화의의 불가함을 피력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의 의병진은 성리학적 명분과 화이론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었다.

조수성의 일지는 의병을 모집과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훈련 내용과 진격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인 중심의 호남 정서와 서인으

로부터 엄청난 수난을 당하였던 동인 가계 출신이라는 점이 조수성의 의병 거의 과정에 작용하였으며, 조수성은 독자적인 전투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집안 인물을 중심으로 의병 모집과 군수물자 조달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화순 지역 유생들의 도움이 보태져 구성된 조수성 의병진은 관이나 호남 지역 다른 의병진과 협력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른 호남의병과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움직였으며, 비록 화순현감의 협조를 받기는 하였지만 관으로부터 도움이나 정보를 듣지 못하여 마치 별동부대인 것처럼 활동하였다. 조수성 의병진이 다른 호남의병에 비해 조직과 인원에서 뛰어났음에도 후대 병자호남의병의 주축으로 자리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적도와 조수성의 의병은 다른 의병과 합세하여 적과 전투를 치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신적도는 화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남한산성을 향해 신속하게 나아갔으며, 조수성은 적과 전투를 염두에 두고 준비 과정에 노력하였다. 다만 조수성은 호남을 아우르는 호남의병진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비록 다른 호남의병과 협력하더라도 자신의 의병진이 갖는 독자적인 전투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호남의병은 서인 세력 중심으로 무리지어졌으며, 조수성은 남인세력이었다. 남인 출신 신적도와 조수성이 일지를 남겨 병자호란 시 의병 활동을 남겼지만,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진으로 위상을 갖지 못한 점은 이와 관련이 있다.

**<주제어>**

병자호란, 의병, 신적도, 조수성, 창의일기(의병일기)

**Abstract**


---

**Analysis of Ui-byeong in Yongnam and Honam  
Area, using Shin's and Jo's Wartime Diary  
(Chang-ui Diary) during the Ching's Invasion in 1636**

---

Ryu Chang-gyu

The diary of Shin, Jeok-do and Jo, Su-seong is important and rare material to help us understand the guerrilla force during Byeongja-horan, the second war occurred from Ching's invasion. Shin, Jeok-do and Jo, Su-seong were guerrilla leaders at that time. Their diary deal with various aspect of ui-byeong(Guerrilla forc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ir guerrilla force. Their diary tell the reason and process why they created the guerrilla force, what were the components of the guerrilla force and its activity. Also, difference between ui-byeongs in Honam and Yongnam area.

Shin's diary is mainly about the situation at that time, also briefly depicting guerrilla component and training. Shin's force was located in Ui-seong and quite massive. It's main objective was to reach Namhansanseong(the refuge of Joseon King, In-jo) independently and secure it. The objective is partly the reason for their early dismissal right after their failure to secure it. Shin strongly opposed to the truce. His troop was completely relied on the Confucian theory of expulsing barbaric outlanders.

Jo's diary depicts the enlistment of guerrillas and supply, training content and troop movement in detail. Jo's background as a minority gentry affected the whole process of his guerrilla force. He stressed training which didn't rely on the other force. Because of his background, his troop didn't get assistance from other troops. That is the reason why his troop had to be a minor force, regardless of the troop's outstan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Shin's and Jo's objective was not for coordinated battle. Shin's troop swiftly moved toward Namhansanseong and Jo's troop concentrated on preparation. Jo's troop sometimes participated in the coordinated battle but its main focus was independent battle. Shin and Jo's minor background as a Nam-in fraction was the reason why they couldn't be the main guerrilla force.

**<Key words>**

Byeongja-horan, Ui-byeong, Shin Jeok-Do, Jo Su-Seong,  
Chang-ui Diary(Wartime Guerrilla Diary)

**참고문헌**

**1. 1차 사료**

『호남병자창의록』, 『은봉창의록』, 『호남절의록』, 『연려실기술』, 『속잡록』,  
『호계선생유집』, 『청강집』, 『구봉집』, 『당촌집』, 『괴당선생문집』, 『사서선생문집』

**2. 2차 사료**

- 『화순군지』(1980).
- 신해진, 『역주 창의록』(역락, 2009).
  
-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퇴계학과 한국문화』 32(2003).
- 권수용, 「병자창의록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2011).
- 김동수, 「기축옥사와 호남사림」, 『기축옥사 재조명』(선인, 2010)
- \_\_\_\_\_,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2011).
- 김태안, 「호계 신적도의 생평과 의병활동」, 『퇴계학』 8(1996).
- 류창규, 「병자호란과 호남의병」, 『남도문화연구』 21(2011).
- 박해장, 「정곡 조대중의 생애와 사상」, 『기축옥사 재조명』(선인, 2010).
- 이장희, 「정묘·병자호란시 의병 연구」, 『국사관논총』 30(1991).
- 장숙필, 「호계 신적도의 의리사상과 그 사상적 토대」, 『동양고전연구』 33(2008).